10.15686/fkl.2024..61.36 OPEN ACCESS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

-김혜진,『딸에 대하여』와 황정은,『연년세세』를 중심으로

윤혜정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1 여성연대의 문제적 현실과 불화하는 여성가족
2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불완전한 관계의 윤리-김혜진,『딸에 대하여』
3 망실된 역사와 파편화된 이야기의 정치-황정은,『연년세세』
4 페미니즘을 통해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문학들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혜진의『딸에 대하여』와 황정은의『연년세세』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발간된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을 분석한 글이다. 최근 여성 작가들의 서사에서는 남성 구성원 중심의 가족 이야기가 아닌, 그로부터 배제되어 온 여성 인물과 그들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공동체와 그들의 연대라는 희망찬 전망 아래 가려진 균열과 불화의 양상들이다. 이때 김혜진과 황정은의 작품은 자본주의의 폭력성이나 내면의 혐오와 같은 여러 현실적 문제를 안고 가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성인물들의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이 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김혜진의『딸에 대하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마저도 자본의 영향을 받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을 잘 제시한다. 여성가족사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황정은의『연년세세』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상황 속에 놓인 여성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통해 결코 하나의 역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들의 삶을 그려낸다. 이렇듯 김혜진과 황정은의 소설은 현시대에도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대한 관찰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그러한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가족 이야기가 그저 환상으로 남거나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문핵심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 김혜진, 황정은, 신자유주의 시대, 파편적 글쓰기

1 여성연대의 문제적 현실과 불화하는 여성가족

2010년대를 지나오며 여성문학 혹은 여성 작가의 작품은 한국 문단 내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부터 여성문학이 지닌 가치를 발굴하

려는 시도는 숱하게 있어 왔지만, 여성 작가가 쓰거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에 크나큰 관심이 쏠린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페미니즘 리부트'[1] 현상과 문단내성폭력 고발과 같은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 일어났다.[2]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밝혀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매애'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 투쟁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연스레 문학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갔는데, 늘 중심에 놓여 있었던 남성들의 목소리가 아닌 여성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아온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서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2016)은 "김지영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작품이다. 당시 가족 제도 안에서 차별받고 억압당했던 여성의 삶을 '김지영'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보여준 이 소설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대중의 큰 지지를 받은 작품은 여성 간의 연대와 사랑을 다룬 작품들이었다.[3] 최은영, 김초엽, 정세랑 등과 같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면서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여성 작가들의 서사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흐름

---

1 페미니즘 리부트는 "2015년 촉발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메갤)의 미러링 스피치mirroring speech 운동을 거쳐 '강남역 10번 출구'를 지나 '전국디바협회'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나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의 운동"을 일컫는다.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7-48쪽.)

2 허윤,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을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소설 속 여성 간 관계에 관한 소고」, 『문학들』 제69호, 심미안, 2022, 43-44쪽 참조.

3 오혜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매체 속 모습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성 간의 우애와 연대의 징후는 뚜렷하다." 이때 그는 2013년 방영된 〈꽃보다 누나〉에서부터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까지의 작품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여성 연대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의 소설들에 주목한다. (오혜진, 「세대로 이어지는 환대와 우애의 여성 서사」, 『중앙어문』 제92호, 중앙어문학회, 2002, 271쪽.)

을 형성했다.[4]

그런데 이렇게 여성 간의 연대와 사랑을 그리는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가족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여성 서사에서는 남성 구성원 중심의 가족 이야기가 아닌, 그로부터 배제되어 온 여성 인물과 그들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보편의 역사로 여겨져 온 남성 중심의 가족 서사를 해체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은폐되어온 여성들의 희생과 고통을 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모색한다.[5] 예컨대 백수린의 『친애하고, 친애하는』(2019),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2020), 최은영의 『밝은 밤』(2021) 등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3대 혹은 4대에 걸쳐 전개되는 여성 가족 서사는 주변부의 이야기로 취급되어온 여성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담아내면서도 이 여성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또 화해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공동체와 그들의 연대라는 희망찬 전망 아래 가려진 균열과 불화의 양상들이다. '페미니즘 리부

---

4 박혜빈, "한국 문학의 새로운 흐름, 2030 젊은 여성 작가들: 최은영, 김초엽, 정세랑", 문화뉴스, 2020.07.16.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47, 2024.03.14.

5 오혜진에 따르면 이금이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 최은영의 『밝은 밤』은 "다양한 여성서사를 통해 경쟁과 가부장제, 위계질서가 아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을 담아내고 있다. (오혜진, 앞의 글, 269-270쪽.)
오혜진과 비슷한 관점에서 근래의 여성가족소설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유진, 「'여인의 일생'과 가족사 소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 『파친코』, 『알로하, 나의 엄마들』, 『밝은 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93호, 중앙어문학회, 2023.
윤혜정, 「목소리의 공명을 통한 여성서사의 확장: 최은영의 『밝은 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이채원, 「남성중심 역사서술의 대항담론으로서 문학적 증언: 동시대 여성가족사소설 『시선으로부터,』와 『밝은 밤』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학』 제16권 제2호, 여성학연구소, 2023.
정미선, 「모녀 간 친밀성 서사의 젠더 정치: 오정희와 백수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어문논총』 제35호,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트’가 사실 “‘편’의 형식을 먼저 차용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손희정의 질문처럼,[6]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을 상상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엿보는 방식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작품은 결코 쉽게 봉합될 수 없는, 불화하는 여성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들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김혜진과 황정은의 작품은 자본주의의 폭력성이나 내면의 혐오와 같은 여러 현실적 문제를 안고 가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성인물들의 처지에 주목하고 이들이 가족과 맺는 관계를 마냥 긍정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서사는 이 시대의 페미니즘이 경계할 필요가 있는,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심진경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문학이 이전 시대의 여성문학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날의 여성문학은 “단지 생물학적 여성의 문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세대 의식이나 노동조건의 변화, 디지털 문화와 같은 다른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7] ‘여성’이라는 단어 안에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때 김혜진과 황정은의 소설은 여성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억압과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여성이라는 범주에 한정하여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이들 작품은 모두 여성이나 여성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존재나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8](2017)는 일인칭 화자인 중년 여성이 동성 애인을 둔 딸에게 느끼는 복잡한 심경을 다룬 소설로, 가족 서사 안에서 계급의 문제를 논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오연희는 김혜진의 소설이 “프롤레타리아 가족 구성원의 여성들”이 당연하게 수행해야 하는 돌봄노동의 문제를 포착

6 손희정, 앞의 글, 88쪽.

7 심진경 외, 「한국문학은 여성의 것이 되었나」, 『자음과모음』 제58호, 자음과모음, 2023, 41쪽.

8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이하 인용은 본문에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하면서도 돈을 매개로 한 돌봄이 아닌, 사랑을 매개로 한 돌봄을 기반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 체제를 찾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9] 한편, 황정은의 『연년세세』[10](2020)는 이순일과 두 딸의 시점을 교차하여 엮어낸 연작소설로, 불평등한 성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문제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쉽게 봉합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김주원은 황정은의 소설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한국사회의 공고한 혈연주의의 바깥을 탐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혈연관계에 귀속되지 않는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한다.[11]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두 작가의 소설이 계급 문제와 같은 현실의 여러 조건들을 가족 서사 안에 녹여냄과 동시에 혈연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가족 관계를 상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주요한 참조점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삼으면서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문학이라는 맥락에서 각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가족 간의 '균열' 지점을 살피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즉, 두 작가의 작품이 최근의 여성가족소설들과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여성 가족 서사가 현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불완전한 관계의 윤리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는 엄마와 딸이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완전히 어긋난 것처럼 보인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나가는 전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여성 작가의 가족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김혜진의 소설

9 오연희,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가족의 두 양상: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를 중심으로」, 『전남대 어문논총』 제38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21, 72쪽.

10 황정은, 『연년세세』, 창비, 2020. 이하 인용은 본문에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11 김주원, 「여성의 돌봄에서 공동체의 돌봄으로, 최근 소설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51권 제1호, 창비, 2023, 329;328쪽.

은 모녀간의 강한 애착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12] 현 사회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 한다. 즉, 그의 작품은 가족 내부의 관계나 질서를 살피는 작업에 천착하기보다는, 가족 바깥의 질서가 가족 관계와 그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리얼리즘 작가'[13]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 김혜진은 등단 초기부터 꾸준히 한국 사회의 질서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닌 여러 문제점들을 잘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점에서 김혜진의 소설은 모녀 관계에 중점을 둔 페미니즘 소설로 읽힐 수도 있지만, 성 소수자 커플이 받는 차별과 억압에 주목하는 퀴어 소설로도 읽힐 수 있고, 늙어감과 죽음의 문제에 천착한 노년 소설로도 읽힐 수 있으며, 보다 넓게는 하층 계급 여성의 지난한 삶을 다룬 계급 소설로도 읽힐 수 있다.[14]

---

12 모녀간의 분리될 수 없는 강한 애착관계를 토대로 남성 중심적 가족 구조에 대항하는 서사는 여성가족소설에서 흔히 발견되곤 하는데, 이러한 서사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대문자 남근을 피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딸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녀에게 어머니와의 전오이디푸스적 관계를 상징하는 기호계는 남성 중심적인 상징계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제인 갤럽, 심하은·채세진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딸의 유혹』, 꿈꾼문고, 2021, 232쪽 참조.)

13 "사실 저는 예전 작가들이 쓰던 리얼리즘 문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라는 작가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김혜진식 리얼리즘'은 이전까지의 리얼리즘 문학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는 단순히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김혜진식 생각하는 소설의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김혜진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 독자들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혜진·박진희, "[신재우의 작가만세] 김혜진 리얼리즘 소설도 요즘처럼 '거리두기' 중요해요", 뉴시스, 2022.11.1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2173, 2024.03.14.)

14 김미현은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를 "동성애자를 딸로 둔 어머니가 겪는 갈등과 화해가 중심인 퀴어 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 "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성 소수자 커플, 그리고 무연고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하는 가족 소설이나 늙음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노년 소설", 나아가서는 희생당한 어머니인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돌봄 윤리의 소설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현, 「정의에서 돌봄으로, 돌봄에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고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김혜진의 소설이 그려내는 가족 또는 모녀 관계에 '자본'[15]의 문제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생겨났고, 그래서 자신과 거의 동일시했던 과거의 딸이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 없다는 듯 굴고 있"(37)는 현재를 마주한 '나'는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딸과 그의 동성 파트너 '레인'을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녀간에 존재하는 강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모두 '돈'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적어도 자신에게 당장 큰돈이 있었더라면 두 아이를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연애를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고민 끝에 내가 적당하다고 여긴 말의 수위는 겨우 그 정도다. 그러나 결국 그 말조차도 꺼내지 못한다. 돈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안다. 내가 이 애들에게 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과 식료품 명목으로 웃돈을 더 받지 않았다면. 딸애에게 전셋집을 얻어 주는 조건으로 그 애와 헤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면. 딸애가 빌려 간 돈을 당장 내주고 그 애에게 나가 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
> 언제든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고 엄한 얼굴로 충고와 조언을 했을 것이다.
>
> 지금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딸애를 세상에 데려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자격이 유지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나는 이제 그럴 능력도 기운도 없다.(64)

서 자기돌봄으로」, 『그림자의 빛』, 민음사, 2020, 159쪽.)

15 자본은 "때로는 노동자가 생산해낸 온갖 생산 도구를 가리"키며, "사업에 투자되는 화폐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화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유형무형의 능력을 추상적으로 총칭하기도 한다." 이렇듯 자본이라는 말의 정의를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여러 논쟁이 있으나, 본고는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 즉 많은 양의 화폐(돈)'라는 의미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홍기빈, 『자본주의』, 책세상, 2010, 30쪽.)

인용문에서 '나'는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유지했던 시절은 지났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더라면 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소설은 이제 우리가 돈으로 원하는 가족을 만들 수도, 그리고 원치 않는 가족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21세기적 '신자유주의'[16] 체제는 가족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가치들을 '돈'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부장제 국가의 통치를 받는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고, 여성 역시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포스트 페미니즘'[17]의 흐름에 힘입어 등장한 새로운 여성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 결합함에 따라 소비하는 여성 또는 경제력을 지닌 여성이 여성의 해방을 이끄는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자리하게 된 것과도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18]

---

16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경제를 살리는 열쇠는 오로지 기업만이 가지고 있으며, 이 기업들의 성쇠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부가 투자자들과 기업의 의욕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안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영훈, 「신자유주의 "자본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나침반 36.5도』 2018년 5월호, 입시엔, 2018, 58쪽.)

17 "'페미니즘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는 페미니즘의 등장 이후 이와 맺는 관계의 양상과 그에 내재한 정치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서구에서 근대 초기 참정권 운동이 성과를 거둔 직후부터 사용되었다. 당시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참정권이 획득되었으니 이제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페미니스트들 스스로 자신들을 '포스트페미니스트'라고 불렀다." (김현경,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 가족서사: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제1호,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9쪽.)

18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새로운 여성 담론은 1980년대에 감행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싱글되기'와 2000년대에 대중화된 '신자유주의적 여성 성공 모델'을 모두 흡수·반영한다." (오혜진, 「불투명한 언어로 말하기: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소수자정치와 재현」, 『연구자의 탄생』, 돌베개, 2022, 84쪽.)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돈을 절대시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계급 격차와 차별의 문제에도 둔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가족과 돈의 결탁은 언뜻 여성에게 해방의 도구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여성의 경제적 능력의 강조는 도리어 기존의 규범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에 순응하는 현상을 낳게 한다.[19] 무엇보다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여전히 이 세계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원되는 현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혜진의 소설은 돈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회가 아닌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의 여성 가족이 처한 곤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강력한 자본의 힘 아래 김혜진의 여성인물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며, 누군가를 돌보거나 지키는 일 자체에도 주저함을 느끼게 된다. 예컨대 소설에는 평생 약자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한 돌봄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버려질 위기에 처한 노년 여성 '젠'과 그녀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 그리고 성소수자인 동료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시간 강사인 딸의 모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여성의 노동을 폄하하고 젠더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서로를 품고 연대하는 이상적인 여성가족의 형상을 꿈꾸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혜진의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하는 까닭 또한 이들이 차별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폭력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

19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생산성과 경쟁력이라는 담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가령 "탈학교 대안교육을 주장하는 여성 이론가의 경우, 강압적이지 않은 대안적인 교육을 시킨 결과,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옥희, 「나이의 젠더화, 계층화, 그리고 '가치있는' 삶」, 『여/성이론』 제19호, 도서출판여이연, 2008, 42쪽.)

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 역시도 그러한 폭력의 희생양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차별받는 이 사회의 규율을 내면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20] 특히, 작품 속 '나'는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어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기에, "다들 건장하고 능력 있는 남편감을 고르는 시기에 딸애와 이 애"(41)가 벌이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그녀는 딸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딸의 정체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져다줄지를 걱정하며 계속 딸을 설득하려 한다.

>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너희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
>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 하게 막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
> 가족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아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걸 너희가 알아? (…)
>
>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 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107-108)

위의 인용문에서 그린과 레인이 가족이 될 수 없음을 단정 짓는 엄마의 말속에는 딸이 이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염려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염려 속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다. 딸이 엄마에게 내뱉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딸에게는 그러한 엄마의 태도가 자신과 레인을 차별하는 외부인의 행동과 크게 다

---

20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란 폭력적인 단속을 받는 동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규범이 지닌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작품에서 '나' 역시도 학습된 젠더 관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한 자신의 혐오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62쪽 참조.)

르지 않게 여겨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엄마만은 이해해주길 바란 딸의 기대와는 달리, 엄마 역시도 딸의 정체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을 혐오하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김혜진의 소설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멸시와 혐오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성 애인을 둔 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여성 내면에 존재하는 '혐오'[21]의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신의 딸임에도 '나'에게서 나타나는 혐오의 감정은 같은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일한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쉽게 연대하거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계급·성정체성 등의 '차이'를 통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김혜진의 소설은 여성가족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그리지는 않는다. 작가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돌봄 노동'을 폄하되는 가치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을 그려 나간다. 노년 여성인 젠을 끝까지 돌보는 '나'의 모습과 그러한 '나'와 젠을 함께 살피는 딸의 애인 '레인'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돌봄의 관계 속에서 혐오의 정동 역시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데, 자신과 다른 존재를 혐오하는 마음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취약성'을 지닌 존재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공존하면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김혜진의 소설은 이 시대의 혐오를 넘어 보다 윤리적인 관계성을 그리는 것에 가닿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혜진 소설에

---

21 오랜 역사 속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왔다." 이 시대의 혐오는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강화하며, 그것을 관계망 안에서 간주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열정적인 정동이다." (손희정, 「혐오의 시대: 혐오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5-46쪽 참조.)

나타나는 이러한 관계성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22]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여전히 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딸과 레인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나’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견뎌 낼 수 있을까”(197)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폭력적인 사회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았던 규율과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둘의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해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나’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현 사회의 폭력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 역시 계속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혜진이 그리는 중년 여성의 ‘자기 서사’가 자신의 주체성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23] 예컨대 ‘나’는 요양원으로부터 젠을 지키기 위한 항변을 펼치면서 “이런 말이 내 안의 어딘가에 있었다는 게 놀랍다”(131)고 고백하는 등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무력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고 싶었던 ‘나’는 딸과 레인에게 혐오의 말을 내뱉는 시위의 현장에서, 그리고 젠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요양원의 모습으로부터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조금씩 변화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우리’로 묶일 수 있는 완전한 가족을 꿈꿀 수는 없더라도, 김혜진의 소설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혐오와 그 한계를 인정해나가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가족 소설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 맺음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2 오연희, 앞의 글, 72쪽.

23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 의해 훼손되는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적인 “나”를 비울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한다.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233쪽.)

3 망실된 역사와 파편화된 이야기의 정치

황정은의 『연년세세』는 김혜진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작품의 큰 토대로 삼고 있지만, 한국전쟁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여성 가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사소설로도 분류될 수 있다. 작가의 이전 소설들이 주로 동시대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정은의 이번 소설은 "역사적 이야기로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24]

아마도 이러한 전환을 2010년대 이후 페미니즘 문학과 문학 비평이 보인 행보와 연결 지어볼 수 있을 듯하다. 이 시기 여성 문학(비평)은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주변부적 존재로 남아있던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이 여성들을 역사 속에서 침묵하도록 했는가를 밝히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25] 특히 김숨의 『바느질하는 여자』와 최은영의 『밝은 밤』, 그리고 강화길의 「음복」이나 「가원」과 같은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을 타자의 자리에 놓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기존의 남성 중심 역사를 해체하고 이에 대항하는 힘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때 황정은의 『연년세세』는 가족 안에서 여성이 겪어온 수모와 억압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러한 글쓰기의 결과물이 단일한 역사로 환원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26] 황정은 소설의 주요 특징 중 하

---

24 백지연, 「삶의 전환을 꿈꾸는 돌봄의 상상력: 황정은과 이주혜 소설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제49권 제2호, 창비, 2021, 20쪽.

25 본문에서 설명한 페미니즘 비평의 대표적 예시는 2018년 발간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에 잘 나타난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주류 문학사의 남성 중심적 질서가 만들어온 문학사를 다시 보고 쓰는 작업을 담아내고 있다.

26 선우은실은 여성 서사의 계보화 작업이 "남성중심적 문학사 쓰기의 위계적 기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간 유효한 비판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박완서와 황정은의 작품을 분석하며 "여성 서사의 증언적 성격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구술되는 것으로서 서사를 계보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선우은실,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화 및 구술사/생활사적 성

나는 바로 이 소설이 여성 가족 구성원의 시점을 교차해 엮어낸 '연작소설'이라는 사실이다. 한 사람만의 시각이 아니라, 엄마로서 또 딸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입장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한 사람의 시선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파악하게 되는 가족 서사를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딸 '한세진'의 시선에서 엄마 '이순일'과 동행한 파묘의 과정을 그린 소설 「파묘」에서부터 첫째 딸 '한영진'이 평생 이순일에게 묻지 못할 "오랜 질문"(83)에 대해 털어놓는 소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순일의 지난 역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작품 「무명」과 여성 이민자로서의 살아온 이순일의 이모 '윤부경'의 이야기를 녹인 소설 「다가오는 것들」까지 『연년세세』에는 각기 다른 여성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황정은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개체적이고 특수하며 작고 주변적인 것들의 진실을 옹호"[27]한 발터 벤야민의 사유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벤야민은 집단적인 이념으로 귀결되는 역사관을 거부하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것들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학자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역사는 "일목요연한 하나의 논리적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승자의 관점에서나 중앙과 지배의 관점에서 그 나름대로 정리되고 요약"된 것으로, "패자나 주변인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28] 황정은 역시 매끄럽고 정돈된 여성 가족 서사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파편적 글쓰기'를 통해 "지금까지 승리자의 역사 속에서 간과되고 잊혀진 삶을 염두에 두"[29]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야민의 사유와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황정은의 가족소설은 망각된 자들의 삶을 살피는 일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작가가 살면서 만난 수많은 '순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살

격 탐구: 박완서 『나목』,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214-215쪽.)

27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한길사, 2014, 13쪽.

28 위의 책, 142쪽.

29 정혜욱, 『번역과 문화연구: 합일을 거부하는 반복』,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49쪽.

아온 '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황정은의 소설이 시작된 것이다.[30] 작가의 말에 의하면 수록된 작품 중에서도 「무명」은 "1946년생 순자씨의 피란 이야기를 듣고" 쓴 작품으로, 46년생 순자씨와의 인터뷰에서 작가가 느낀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모두 끊어져 있다는" 것이었다.(184) 이에 작가는 조각난 순자씨의 이야기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소설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무명」은 "순할 순順에 아이 자子. 귶코, 순한 아이"(123)가 자신의 이름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순일과 그의 동무 순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잊혀진 수많은 순자들을 위한 이야기로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작가는 순자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작품에 수록된 소설 속 인물들이 자신의 성과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작품인 「파묘」에서부터 황정은의 인물들은 누구의 엄마나 딸,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이순일과 한영진, 한세진, 그리고 한만수로 호명된다. 소설 초반부를 읽는 독자들이라면 인물 사이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가는 작중 인물을 지칭할 때 "관계나 성별과 관련해서 거의 아무런 정보를 담아내고 있지 않는다."[31] 가족 안에서 엄마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나 남성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역할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도록 만들기에, 황정은은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름을 자신의 인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황정은의 소설이 이렇게 망실된 이름을 찾아주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특정한 존재나 집단의 역사를 복원하고 되살리는 작

30 1940년대 가장 많았던 여자 이름은 영자, 정자, 순자, 춘자 순이다. 이는 일제에 의해 시행된 창씨개명으로 에이코, 마사코, 준코, 하루코 같은 일본식 이름을 지은 뒤 한국식으로 바꿔 부르면서 생긴 일이다. 그 시대 수많은 '-자'들은 대충 지어진 이름만큼이나 비슷한 정도로 희생했고, 고생했고, 나이 들어갔다. (한소범, 「그 많던 '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국일보』, 2020.09.18.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36683?sid=103, 2024.03.14.)

31 정홍수,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광장'이라는 신기루: 황정은, 『연년세세』(창비, 2020)/김혜진, 『너라는 생활』(문학동네, 2020)」, 『문학과사회』 제33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20, 346쪽.

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식모살이를 하는 등 지난한 삶을 살아온 이순일은 이제 자신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망실되어가는 가족사를 결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한다.

> 망실된 그들의 이름은 이순일의 삶이 끝날 때 비로소 완전히 망亡이 될 것이다. 이순일이 그 문서를 닫은 사람이었다. 이순일은 거기 적힌 이름들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그 숱하고 징그러운 이야기를…… 그것을 내가 다시 생각하며 말해야 하는가. 이순일은 아이들이, 한영진과 한세진과 한만수가 그 일을 이야기로도 겪지 않기를 바랐다.(「무명」, 132-133)

전쟁으로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기록상으로 죽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동생 '이은일'까지 그들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온 이순일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아는 자신마저 죽고 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망亡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순일이 이를 소망했던 이유는 자신과 그 가족이 걸어온 역사가 엄청난 비극이었고, 그래서 이순일에게는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파묘」에서 이순일이 어린 시절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준 외조부의 묘를 "파묘해 없애버리기로 결정했"(18)던 것도 망실의 과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를 거듭하여 계속 이어진다'는 뜻을 지닌 "연년세세"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이 고통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고 이어져 내린다.[32] 무엇보다 이순일의 딸들은 이미 이순일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하고 싶은 말」에서 한영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와 동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의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엄마의 사물들과 엄마의 짜증을 감당"(50)함으로써 이순일의 희생을 이어나가

32 본래 이 말은 축복을 빌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쓰는 용어이나, 이 작품에서 '연년세세'는 그러한 소망과 암울한 전망이 공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된다. (위의 글, 345쪽 참조.)

는 모습을 보인다. 한영진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물려준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그러한 엄마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의 노동이 있었기에 모성에 거부감을 가졌던 자신이 아이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아이를 좋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가정 역시 지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진은 엄마에게 "왜 나를 당신의 밥상 앞에 붙들어두"(83)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왜 나에게만 늘 "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84)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했느냐고 따져 묻고 싶지만, 그 말들을 끝내 순일에게 전하지는 못한다.

이렇듯 황정은의 여성 인물들은 전할 수 없는 말들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서로에게 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러면서도 서로가 다치지 않기 위해 내뱉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이순일은 딸 "한영진이 끝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무명」, 142) 한영진이 자신에게 받은 상처는 이순일 역시 경험해본 것이었고, 자신 또한 비슷한 이유로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꼭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타국에서 "당신은 위대하다"(「파묘」, 34)는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하는 무지를 보이는 아들 한만수에게는 공유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황정은의 소설은 말로 내뱉지 않더라도 이미 서로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여성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황정은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끈끈한 유대나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작품인 「다가오는 것들」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작가는 그러한 관계나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다가오는 것들」에 등장하는 두 인물, 파비앵과 나탈리는 선생과 제자로 만났다가 지적 동료로 우정을 이어가지만 화해할 수 없는 가치관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벌인다. (…) 포스터를 영화의 첫인상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없다. 둘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영화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라고 하미영은 말했다. (…)

미아 한센뢰베는 「다가오는 것들」에서 로맨스와 화해에 관한 기대를,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실망시키는데, 그게 정말 좋다고 하미영은 말했다.(「다가오는 것들」, 181-182)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가오는 것들"은 한세진의 연인인 하미영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제목으로, 이 영화에서 로맨스는 없거나 실패한다. 지난한 삶이 지속되는 이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펼쳐질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자 누군가에게는 기만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적 사건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입양아 수출에 대해 말하는 사람"(「다가오는 것들」, 165)은 그 누구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한 고통이 있고, 그래서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황정은의 소설은 서사를 완성하거나 종결시키려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는 개개인의 이야기를 조각난 형태로 남겨둠으로써 개별자들의 비가시화된 삶을 비추는 작업을 계속 행한다. 이 소설이 모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작가가 그리는 여성가족의 미래가 혈연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갇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황정은의 소설은 망실되었거나 망실 되어가는 이들의 고통을 파편화된 이야기로 제시함으로써 동질적이고 목적론적인 역사를 파열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해나가고 있다.[33]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연년세세"는 고통이 전승된다는 의미를 넘어 진정한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4 페미니즘을 통해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문학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문학장은 여러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중심에는 여

33 정혜욱,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번역의 과제」, 『비평과 이론』 제20권 제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62쪽 참조.

성문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그렇게 자리 잡은 페미니즘 문학은 점차 퀴어와 장애학, 그리고 신유물론이라는 여러 중대한 사유를 담은 학문과 교차하며 그 저변을 넓혀왔다.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 놓인 주변부적 존재들을 살피고, 그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수반되어야만 하는 작업이 있다면, 페미니즘 문학 안에서 그러한 교차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페미니즘 비평을 통해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 문학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페미니즘을 통해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이 시대에 새롭게 갱신되어 가는 여성문학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출간된 여성가족소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흐름에 힘입어 무엇보다 여성 간의 연대를 다루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소설에 주목하려 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여성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의 양상이 잘 나타나는 두 작품, 『딸에 대하여』와 『연년세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작품은 모두 여성가족 간에 나타나는 균열의 지점을 잘 포착함으로써 같은 '여성'임에도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혜진의 소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마저도 자본의 영향을 받는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을 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순자'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엮어낸 황정은의 소설은 여성 가족의 파편화된 이야기를 통해 결코 하나의 역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인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듯 김혜진과 황정은의 소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대한 관찰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그러한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가족 이야기가 그저 환상으로 남거나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들 작품 외에도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흐름에 힘입어 출간된 수많은

여성가족소설은 저마다의 특색을 지니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 서사에 대항하는 힘을 보여주었기에 그러한 작품들이 지닌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여전히 이 시대에 페미니즘 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페미니즘이 안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탐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페미니즘 문학이 지닌 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 살피고 의심하는 일이지 않을까. 페미니즘 안에서 페미니즘을 부단히 갱신하는 과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혜진,『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황정은,『연년세세』, 창비, 2020.

단행본

국내저서

김미현,『그림자의 빛』, 민음사, 2020.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한길사, 2014.

손희정,『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오혜진 외,『연구자의 탄생』, 돌베개, 2022.

정혜욱,『번역과 문화연구: 합일을 거부하는 반복』,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홍기빈,『자본주의』, 책세상, 2010.

번역서

제인 갤럽, 심하은·채세진 역,『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딸의 유혹』, 꿈꾼문고, 2021.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_____, 양효실 역,『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논문 및 평론

강유진, 「‘여인의 일생’과 가족사 소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 『파친코』, 『알로하, 나의 엄마들』, 『밝은 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93호, 중앙어문학회, 2023, 269-302쪽.

김주원, 「여성의 돌봄에서 공동체의 돌봄으로, 최근 소설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51권 제1호, 창비, 2023, 322-336쪽.

김현경,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 가족서사: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제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5-39쪽.

문영훈, 「신자유주의 “자본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나침반 36.5도』 2018년 5월호, 입시엔, 2018, 56-59쪽.

백지연, 「삶의 전환을 꿈꾸는 돌봄의 상상력: 황정은과 이주혜 소설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49권 제2호, 창비, 2021, 17-33쪽.

선우은실,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화 및 구술사/생활사적 성격 탐구: 박완서 『나목』,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213-239쪽.

심진경 외, 「한국문학은 여성의 것이 되었나」, 『자음과모음』 제58호, 자음과모음, 2023, 11-43쪽.

오연희,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가족의 두 양상: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를 중심으로」, 『전남대 어문논총』 제38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21, 71-93쪽.

오혜진, 「세대로 이어지는 환대와 우애의 여성 서사」, 『중앙어문』 제92호, 중앙어문학회, 2002, 269-292쪽.

윤혜정, 「목소리의 공명을 통한 여성서사의 확장: 최은영의 『밝은 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61-90쪽.

이채원, 「남성중심 역사서술의 대항담론으로서 문학적 증언: 동시대 여성가족사 소설 『시선으로부터,』와 『밝은 밤』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학』 제16권 제

2호, 여성학연구소, 2023, 91-120쪽.
임옥희, 「나이의 젠더화, 계층화, 그리고 '가치있는' 삶」, 『여/성이론』 제19호, 도서출판여이연, 2008, 34-58쪽.
정미선, 「모녀 간 친밀성 서사의 젠더 정치: 오정희와 백수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 어문논총』 제35호, 한국어문학연구소, 2019, 39-69쪽.
정혜욱,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번역의 과제」, 『비평과 이론』 제20권 제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41-174쪽.
정홍수,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광장'이라는 신기루: 황정은, 『연년세세』(창비, 2020)/김혜진, 『너라는 생활』(문학동네, 2020)」, 『문학과사회』 제33권 제4호, 문학과지성사, 2020, 345-358쪽.
허윤,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을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소설 속 여성 간 관계에 관한 소고」, 『문학들』 제69호, 심미안, 2022, 43-56쪽.

기타 자료

김혜진·박진희, "[신재우의 작가만세] 김혜진 리얼리즘 소설도 요즘처럼 '거리두기' 중요해요", 뉴시스, 게재일: 2022.11.1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2173. 접속일: 2024.03.14.
박혜빈, "한국 문학의 새로운 흐름, 2030 젊은 여성 작가들: 최은영, 김초엽, 정세랑", 문화뉴스, 게재일: 2020.07.16.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47. 접속일: 2024.03.14.
한소범, 「그 많던 '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국일보』, 게재일: 2020.09.18.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36683?sid=103. 접속일: 2024.03.14.

Abstract

The Aspects and Significance of Cracks in Women and Family Novels after the Feminism Reboot

Yoon, Hye-jeong

This paper analyzes the patterns of cracks depicted in novels published after “the feminism reboot”, focusing on Kim Hye-jin’s “Concerning My Daughter” and Hwang Jung-eun’s “Year of the Year.” Recent narratives by female authors have shifted away from family stories centered around male members, instead attempting to create narratives of women’s families focusing on excluded female characters and their relationships. However, amidst this trend, it is crucial not to overlook the concealed cracks and discord under the hopeful prospect of female solidarity and their collective struggle. In this context, the works of Kim Hye-jin and Hwang Jung-eun deserve attention for their insightful depiction of why mutual understanding among women in these circumstances is often impossible, as they delve into the situations of female characters who, burdened with various realistic issues such as the violence of capitalism or inner hatred, inevitably confront their families.

Kim Hye-jin’s “Concerning My Daughter” accurately discerns the influence of capitalism on contemporary family dynamics through the story of a mother and daughter living in the same era, effectively presenting the potential conflicts among societal underdogs that may arise as a result. Meanwhile, Hwang Jung-eun’s “Year of the Year”, which can also be classified as a female family history novel, similarly portrays the lives of female family members placed in different circumstances, illustrating the lives of women that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history. Both Kim Hye-jin and Hwang Jung-eun’s novels continue to observe the lives of women living in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in the present day. Yet, their family narratives, crafted in resistance to such oppression, seem to strive not to remain mere fantasies or turn into another form of violence.

Key words: after Feminism Reboot, Women and Family Novel, Kim Hye-jin, Hwnag Jung-eun, The era of neoliberalism, Fragmented writing

논문제출 / 2024.03.15.
논문접수 / 2024.03.16.
게재확정 / 2024.04.04.